



# 성실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필요하다

ODC공연가 금빛나 씨

동국대는 9월 13부터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강좌 'Pride Dongguk 지식 콘서트'를 진행 중이다. 11월 1일 동국대 본관 강당에서는 여섯 번째 강의로 ODC공연가 금빛나 씨의 강연이 개최됐다. '나의 청춘과 현재'란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는 무용과 인도 전통문화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석했다. 이날 금빛나 씨는 ODC 공연과 함께 젊은 날의 인도 유행가를 불러주었다. 현재 한국인으로는 유일한 ODC 전수자인 그녀는 현재 오리사 주 주도인 부버네슈어리(Bhubaneswar) 시에서 머물며 ODC계의 거장 구루경가더러브러던(Guru Gangadhar Pradan)의 수제자다. **정리=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ODC란? '오디시'는 인도 고전 무용 중 하나로 고대 힌두사원에서 신을 찬양하기 위해 춤을 추던 신전 무희들의 오랜 전통 중 하나다. 인도 동북부 오리사(Oriasa)주 신전에서 발원한 춤이다.

인도 무용에 빠지게 되기까지

저는 서강대에서 불문학과 종교학, 철학을 전공했습니다. 종교학 공부를 하기 전 3-4주간 방황을 겪었습니다.

서강대는 FA제도가 있어서 출석에 실패한 것을 뜻하는데 1학년 내도록 FA를 받았습니니다. 그 이유는 집안에 사고나 몸이 아픈 것 외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일까'는 의문이 들어서입니다.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는 수업들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성실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필요했습니다. 휴학을 하고 제 인생에 있어 매진할 것을 찾았습니다.

리스트를 작성했는데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꼭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가였습니다.

그것을 하나씩 지워가면서 실행에 옮겼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 부처님오신날 연등행사를 하는 모습을 아파트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당시 미학적인 모습으로 불교에 대해 끌리게 되었습니다. 집안이 가톨릭이었는데 인생에서 종교가 중요하구나를 느껴서 종교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종교학을 만나서 나는 종교인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됐고 자유로움을 얻었습니다. 다양성이 주어지면 즐기게 되지만 다양성 때문에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카미수트라 춤동작을 보았는데 매료되었습니다.

대학원 불교학 공부 차 스리랑카에서 이 춤이 ODC란 것을 알게 됐고, 인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7년간 ODC를 추고 있습니다.

Q: 평소에도 인도 복장을 하고 다니는지  
뉴욕에서 한국무용을 배웠다고 생각해보세요.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알아야 합니다. 텔리 등 대도시에서도 ODC를 배울 수 있지만 저는 오리사 주에서 인도사람과 같이 똑같이 생활하면서 ODC를 하고 있습니다.

Q: 인도에 가면 영감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인도는 종교성과 예술성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전통도 살아있어서 인도에는 '박물관에 가면 죽은것들 뿐이고, 밖에 살아있는 것이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름다운 예술이 일상생활에 함께 있습니다. 저녁에는 신에게 올리는 호롱불을 공양하는 모습부터 여인들이 옷자락을 여미는 모습까지 모두가 아름답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Q: 집안이 가톨릭이었는데 반대는 없었는지  
사실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는 분이였기 때문에 종교전쟁까지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종교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믿는 것에 지금은 어머니가 가장 잘 이해해주십니다.

Q: ODC의 특징과 보는 방법은?  
ODC는 좁은 공간에서 신만을 위해 추기 때문에 작은 몸짓이 대부분입니다. 이 춤을 추는 발원지를 가면 맨스홀이 따로 있습니다. 굉장히 좁습니다. 다른 춤과 비교하면 발레는 태어난 역사가 극장을 위주로 태어났습니다. 발레는 긴 선을 보이고 서양의 신 관념으로 점프 등이 발달했습니다. 한국 기녀들의 전통 무용은 좁은 공간 사방의 선비들이 있는 공간에서 추기 때문에 작은 몸짓이 중요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집안입니다. 신을 위한 춤인 ODC는 목, 눈, 손의 작은 움직임이 중요하며 이에 집중해야 합니다.

Q: 도전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나요?  
스리랑카에서 인도로 떠날 때 두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세상에 용기가 났습니다. '정말 죽기 전, 눈 감기 전 두려움 없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 원동력이었습니다. 먹고 자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취직하는데 상관없이 이 질문을 계속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Q: 나는 누구인가는 질문에 ODC가 큰 영향을?  
저는 종교학과 철학 공부를 하며 나는 누구인가를 정신적으로만 찾았습니다. 저는 내 몸을 쓰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나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를 고민했습니다. 태권도도 해보고 요가도 해보고 유행사나도 해보았습니다.

Q: 중 ODC는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이 합쳐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까. 작은 동작 하나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저에게 잘 맞았고 불교와 힌두교의 철학이 절묘하게 섞여 있는 점도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Q: 사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입니다. 개인주의의 내가 아닌 내 마음속의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고 진짜 내가 얘기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만 있으면 발전이 없습니다. 힐난을 들을 것은 듣고 잘 하는 것은 칭찬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도전하고 실천하는 사람만이 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 좋다면 그냥 하라. 이유 달지 말고

송호준 미디어아트 작가 겸 과학자

"사람들은 저에게 대해 왜 이런 일을 하나요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냥 좋아서 하는 일에 구태여 이유를 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11월 8일 동국대 중앙강당에서 열린 'PRIDE DONGGUK 지식콘서트' 일곱 번째 강좌에는 송호준 미디어아트 작가 겸 과학자가 강연에 나섰다. 송호준 작가는 이날 '개인이 인공위성'을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송 작가는 "최근에 가장 열심히 작업하는 작품이 개인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이다. 6년 전부터 이 작업에 몰두해 왔다. 3년간의 조사기간을 거쳐 3년 전부터 이 작업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개인이 인공위성 발사 연구 6년간 진행  
로켓 임대 1억원 마련 위해 T셔츠 팔아  
젊음 이면에 드러온 불안함 마저 즐겨라

송호준 작가는 무게 1.33kg, 가로·세로 10cm의 큐브 모양의 인공위성을 직접 조립하고, 이를 개인이 쏘아 올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송 작가는 "개인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며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첫 번째는 인공위성을 만들고, 두 번째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로켓을 빌린다. 세 번째는 로켓을 발사시킬 수 있는 통신주파수를 구한 뒤, 통신주파수에 맞는 부품을 구해 최종 테스트를 거치면 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공위성은 600~2000km 하늘 위에서 2시간에 1번씩 지구를 돈다.

송 작가는 "이 프로젝트는 2005년부터 캘리포니아 폴리텍대학교 스탠포드대 학생들이 처음 연구를 진행해 왔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손쉽게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수소문 끝에 이 프로젝트를 알게 됐다"며 "나는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 작가는 현재 이 과정들을 OSS(Open Source Satellite Initiative)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인공위성 제작에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송 작가는 "사람들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 돈이 많이 들지 않느냐고 묻는다. 인공위성을 쏘기 위해서는 로켓을 임대해야 하는데, 임대비용이 약 1억 원 정도 든다"라며 "한국 평균 전세값이 2억 원이 넘는다면 친구들은 이미 가정을 꾸리고 2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내 인생을 전부 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재밌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송 작가는 로켓 임대비용 값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계 디자이너가 참여해 만든 티셔츠를 판매하고 있다. 송 작가는 "1만장을 팔면 1억원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송작가는 프랑스 과학자의 소개로 위성을 쏘아 올릴 러시아 로켓과 가계약을 맺은 상태다. 송호준 작가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는 "선진국, 돈 많은 기업, 유명한 과학자가 아닌 개인도 직접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송 작가는 "세계 최초 인공위성을 띄운 작가"라는 타이틀 등은 나에게 의미가 없다. 큰 꿈을 꾸고 시작한 일도 아니고, 이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작업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토론하고 과정을 공유하는 것들이 매우 재미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송 작가는 "밖은 시장체제로 이뤄지는 데 가끔 '나 혼자 무슨 일을 벌이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든지 알기 이전부터 어떤 선택을 내려야만 했다. 나도 공학을 전공하면서 이런 일을 시작하기까지는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나도 많이 불안한 상태다. 인공위성을 쏘아올린다고 했지만, 이 일이 성공할지에 대해서는 장담하지 못한다. 다만 난 이 과정을 즐길 뿐이다"라며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만이 가질 수 있는 불안함을 즐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naver.com

## 탄허대종사 대방광불화엄경 현토 (80권본) 특별판매

현불상 독점판매 기념 할인 이벤트 「200질 환청판」  
30만원 → 25만원 (선착순 마감)

세월 전 5권을 줄여서 '화엄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대방광불화엄경』은 부처와 중생은 하나라는 것을 기본사상으로 삼고 있으며, 화엄종의 근본경전으로 법화경과 함께 한국 불교사상 확립에 큰 영향을 미친 불교경전 가운데 하나로 불린다. 석가세존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지 2·7일이 되던 때에 말씀하신 것을 옮긴 화엄경에는 6가지 본이 있으며, 3가지 번역이 있다.

화엄경은 당나라 중종 임금의 사성 12년부터 16년까지, 즉 서기 695년부터 366년까지 5년 동안 실차난타가 번역한 것으로 7처에서 90회에 말씀하신 것을 모아 39품 8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나라 때 번역하여 당본 '화엄경'이라고 하고, 80권으로 되었다고 해서 '80화엄'이라고도 한다.

교림출판사  
전 5권 전질 | 금강 | 최고급양장제이스 | 라이온코트지 마색 80그램 | 울케이스 | 전질2도 인쇄

현불상 02)2004-8215  
동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 (염주, 염주 주머니)  
· 사은품: 희담석합장주 (날개) 1만원  
· 크기: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사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들)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내분비물들을 내뱉은 후 원래의 희담석상태로 되돌아옵니다.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격의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상 02)2004-8216 [동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